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성결의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한 우크라이나·라트비아 선교 소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을 버리고 영의 세계를 믿으며 나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권능을 신뢰하는 영적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축복의 언약을 풍성한 열매로!

맥추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 단계로 살펴본다.

“말씀과 권능으로 변화되었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은 유미연 집사와 불교도에서 주의 일꾼이 된 태국 나라폰 사행차이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795호 2017년 7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따르는 표적으로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다!

우크라이나·라트비아 6개 교회 권능의 손수건집회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3년간 이스라엘 선교 이후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목회자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전파되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2017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의 6개 교회에서 이수진 목사(교역자 회장)를 강사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개최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권능이 넘쳐났다.

첫 집회는 6월 9일(금),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시 소재 '천국의 문 교회'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2).

담임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 기도하던 중 크리스탈포럼 목회자들을 통해 이재록 목사와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강사 이수진 목사의 말씀에 은혜받아 선교팀을 초청한 것이다.

강사 이수진 목사가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시작하자 치료받은 간증자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많은 사람의 시력이 좋아졌으며 편마비와 심한 관절염을 치료받아 지팡이와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레라 성도는 미숙아로 태어나 잘 볼 수 없던 딸이 눈꺼풀이 열리고 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하며 눈물로 간증하였고, 티마페이 아동은 심장질환을, 라리사 성도는 척추굴절증, 알렉산드



르 성도는 보행 장애를 치료 받았다(사진 1). 이 외에도 림프종 수술 후유증, 갑상선, 관절염 등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6월 10일(토)에는 수도 키예프 소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15개 도시에 지교회를 가진 교회연합으로 많은 목회자가 참석하였다(사진 3).

총회장 스타니스라브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강사 이수진 목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한 뒤 손수건 기도를 하자 시력이 회복되고, 무릎관절염, 신장질환,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마약 후유증으로 인한 간염 등을 치료받아 간증하였다. 목회자들은 "최고의 집회였다! 목회자가 성결되어 권능을 받아 사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6월 11일(주일)에는 우크라이나 내 200여 개의 지교회를 둔 '승리교회'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수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사진 4). 손수건 기도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통증이 사라져 허리디스크, 보행 장애, 천식 등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했다.

담임 겐리 마다바 목사는 "저도 해외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질시킴이기도 합니다. 마치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킨 하와처럼 진리를 변질시키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도 깨어지고 사단의 송사로 시험 환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굶은일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심고 구제하기를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은 뒤에서 굶은일만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사명으로 인해 남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또 충성하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믿음 성장이 더 빠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나?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인가?’ 생각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결같이 진리를 행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함,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열정이 변함없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이므로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취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화를 해도 어떤 건강식품이 좋고, 어느 집 음식이 맛있고, 요즘 최신 유행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는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없이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영적인 믿음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만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롬 1:20). 더욱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막 10:29~30).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만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하늘에 쌓고자 합니다.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기뻐하지요.

사도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 늙고 야윈 몸에 옷 한 벌 없이 감옥의 추위에 떨며 참수형을 기다리는 죄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주의 사도’라는 최상의 명예와 성령의 권능이라는 크신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있었지요.

또한 장차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믿으므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권능을 구하며, 지나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그날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혹여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 중심이, 제 마음 받아 너무 부족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뒤쳐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시는지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흥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죽은 나뭇가지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까지 나게 하시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강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며,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 사탄에 낙심이란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성결의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마음을 다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수록 나를 변화시켜 온전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세월을 참으시며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젓 먹는 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으며 아버와 같이 장성한 믿음도 있습니다(요일 2:12~14).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변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혹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시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시련이 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 불평하며 그동안 쌓은 것을 헐어버리는 일은 없었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종종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씀을 변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축복의 언약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고 있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동일하게 축복의 언약을 해 주셨다.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축복을 많이 받는가 하면 적게 받는 사람도 있다.

맥추절을 맞아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 단계로 살펴봄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STEP 01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이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해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믿어드릴 때 바로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했다면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자신도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하신 말씀대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 주신다는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STEP 02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해요

"네가 보거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 2:2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 어떠한 이유나 변명, 핑계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렸기에 조금의 오해나 서운함도 없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히 11:17~19).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시기에 이러한 명령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신 후 그를 멈추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확인하는 이 시험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창 22장).

만일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 군대에게 붙잡혔을 것이다(출 14장).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강을 밟아 강물이 멈췄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는 행함이 없었다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수 3장).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직접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요일 3:21~22).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축복의 약속을 정녕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까지 기도해야 한다(겔 36:37). 불같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STEP 03 인내하며 변개함이 없어야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성 주변을 돌게 하셨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를 상대로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성 주변을 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며 한 목소리로 외침으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온 백성의 하나 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보셨던 것이다(약 1:6~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을 때도 출애굽해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홍해를 건넌 후 요단 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아서 성을 점령해야만 했다(수 6장).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도 온전히 믿고 행하되 변함없이 행할 때라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뤄가신다.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정녕 믿음으로 행해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하여 정하신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어 응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응답의 때를 맞기까지 온전히 믿고 행하며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거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항상 의뢰하여 행해 나감으로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기 바란다.

<1면에 이어>



▲ 라트비아 리가 '뉴제너레이션 교회' 집회

6월 13일(화), 북유럽 라트비아 쿨지가지 소재 '쿨지가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

다(1면 사진 5). 이수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이유'에 대해 전한 뒤 손수건으로 기도하자 우울증, 관절염 등이 치료됐으며, 사고로 팔의 신경과 인대가 끊어져 수술받았으나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목회자는 통증이 사라지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6월 14일(수), 라트비아 수도 리가 소재 '뉴제너레이션 교회' 집회(1면 사진 6)에서 이수진 목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한 뒤 손수건 기도를 해 주자 허리척추디스크, 관절염, 호흡기 질환, 우울증 등을 치료받고 시력, 청력이

좋아져 간증했다. 한 목회자는 15년간 고통받던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아 간증하며 목회자로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함을 눈물로 회개하여 은혜가 되었다.

담임 알렉세이 레자예프 목사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만민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었다며 조지아, 불가리아에 만민 선교팀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6월 16일(금), 발미에라 시에 소재한 '계시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1면 사진 7). '믿음'이라는 설교 후 진행된 이수진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팔, 다리, 허리 등의 통증을 치료받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쁨으로 간증하였다.

한편, 매 집회 시 설교에 앞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한 권능의 역사가 담긴 영상 시청과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파워워십팀과 솔리스트 김정은 자매의 영감 어린 공연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집회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인터넷 해외 성도들이 참석하였으며, 라트비아 집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화통역으로 예배드리는 농아 성도 10여 명이 참석해 귀가 열리고 안면마비,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받았다.

1994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위암말기로 대수술을 받았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가기도로 신속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었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2002-2003 송구영신예배 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 모든 것을 정리했지요.

2003년 3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했는데 첫날부터 통회자복의 은혜가 임해 세상 죄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성가대, 기관장 등으로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었고 영혼 관리, 모임 인도 등을 통해 얻은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2013년, 삼성SDI 전자재료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저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원과 함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관심과 사랑으로 상대를 감동시키고자 노력했더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한편, 퇴근 후에는 대학원에 갔다가 다니엘철야를 참



“성결의 복음으로 재창조된 나의 삶, 행복합니다!”

유미연 집사 (39세, 2가나안선교회)

석해 기도한 후 집에 돌아오면 새벽 2~3시까지 숙제, 시험공부, 논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과 과평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어학, 특히 등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할 일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실험실 안전환경 담당까지 맡게 되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KTX를 타고 지방 공장으로 출장을 다니며 공장 초보라 힘든 상황들에 부딪힐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회사를 그만뉘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고, 아무리 저보다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도 겸손히 배우고자 했더니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실험실 평가에서 계속 우수상을 받아 상우고과를 받게 되었지요.

이처럼 힘든 환경과 상황 또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수논문상을 받으며 수료하였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 신앙생활이 안일해졌습니다. 2016년 6월, 저는 회사 사정으로 청주 사업장에 긴급파견 발령을 받게 되었지요.

파견생활이 시작되자 숙소에서 GCN방송으로 혼자 기도하고, 주말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

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목자의 진한 사랑을 느끼며 속히 변화되어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변화되자 힘쓰니 9월, 파견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얼마 후에는 영의 열매로 나오는 축복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유양목 집사님은 십일조가 늘어나고, 어머니 한희중 권사님은 사명 감당에 힘쓰며, 동생 유지연 집사는 예능위원회 크리스탈잉어즈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참 신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라폰 사웁차이 자매 (25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목사) 앞을 지나가다가 한국어 무료 강좌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 가수를 좋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참이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후 매주 화요일 치앙라이만민교회에 가면서 강좌 후 성도들이 찬양예배를 드리며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영상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계속 찬양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2011년 6월 26일, 저는 수련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다음날 교회

에 등록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읽고 들으며,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니 2015년부터는 여청년선교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지요. 또한 주일학교 교사와 태국어 번역, 교회 상근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계신 부모님은 라차팻대학교 태국전통 의학과를 졸업한 제가 평생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되어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만 원한다면 언제든 그리 할 수 있었고 부모님은 여러 차례 회유하셨지만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했지요. 그래서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을 뒤로하고 연구도 없는 치앙

라이에서 지내고 있지만 천국 소망이 가득한 제게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올해 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간 중에 감기가 심해 열이 나고 온몸에 통증이 왔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니 그날 밤 당회장님 꿈을 꾸 뒤 모든 증세가 사라졌지요. 며칠 후에는 결막염을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깨끗해졌습니다. 그 뒤 성구암송대회에서 1등을 하여 8월, 한국에서 열리는 '만민 하계수련회'에 갈 수 있는 특별상까지 받았지요.

참 진리를 모른 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태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잠동1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재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